

스물다섯에 '백경' 읽고 작가의 길로



3 소설가 성석제

성석제 작가는 군대를 제대하던 스물다섯 어느 겨울 날, 허먼 멜빌의 '백경'을 읽었다. 복학을 앞두고 있던 이십 대의 청년은 범접할 수 없는 스케일과 문체에 압도되었다. 그는 단숨에 '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스물다섯은 어정쩡한 나이이다. 서투름과 모호함이 생을 지배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달리고 싶은 열망과 이 탈의 욕망이 아슬아슬한 경계를 이루는 시기다. 그 즈음, 그는 고전을 탐독했다. 세계문화와 한국문학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독서에 빠져들었다. 문학은 세계를 보는 창이자 내면의 DNA를 살찌우는 자양분이었다. '백경'이 주는 감동은 그의 청년 시절을 지배했다. 두

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성 작가는 고래를 자연과 동일시했다. 그는 고래잡이를 자연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오십대에 이른 지금과 '백경'을 읽었던 스물다섯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거였다. 소설을 읽을 때와 창작할 때의 차이라고나 할까. 문장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은 세월과 비례해 변모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고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겠다. 보는 눈이 다르면 수용하고 해석하는 눈 또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보면 장편소설 '단 한번의 연애'에서는 고래가 다양한 이미지로 표상된다. 자연으로 치환되는 고전적인 외경심부터 바다의 로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거대자본의 결속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은 역동적이다. 소설은 초등학교 때 고래잡이 딸에게 반해 버린 소년 이 중년이 되기까지 지순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다. 어찌 보면 단순한 연애서사다. 지극한 남자의 순정은 작가가 이전까지 써왔던 해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작품을 관통하는 이야기성은 여전하다. 그의 소설이 지닌 서사성은 독자를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야기꾼 성석제의 소설이 지닌 근원은 무엇일까. 그는 박지원과 김유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열하일기' '호질' '양반전'이 주는 유쾌한 스타일과 김유정의 '별별' '동백꽃'에 내재한 풍자와 해학이 지금의 그를 작가로

“해학과 풍자는 시대의 붕괴 막는 안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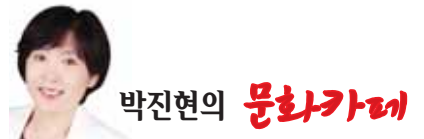
박지원 '열하일기'·김유정 '동백꽃' 등 영향

깨운 부패가 주는 장서의 종량감과 흰 고래 '모비락'의 끈질긴 생명력은 이질적인 울림으로 그를 사로잡았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작가에게선 먼바다를 떠도는 고래의 이미지가 배어 나왔다. 전형적인 모범생의 이미지 이면에 순수한 열정과 우직함이 드러워져 있었다. 근래에 발간된 장편 '단 한번의 연애'를 매개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장쾌한 스케일 이면에 드리워진 인간의 무모한 광기와 도전 그리고 추적, 스펙터클한 장면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백경'을 보면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절제 없이 문장을 쏟아낸 것도 같고, 도전과 개발이라는 근대 가치가 지나치게 부각된 면도 있구요" 의외의 답변이었다. 찬찬히 곰씹어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백경'의 에이러브 선장은 무모한 야심가였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앓아간 고래 모비락에 대한 복수심에 모든 것을 던지는 인물이다. "현대인은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 생명 존중이니 하는 말은 공허

이었던단다. '열하일기'에는 웃음과 역설이 있어요. 삶을 바라보는 디테일한 시선과 공정한 목소리엔 특유의 울림 같은 게 깃들어 있구요. 바늘 끝으로 살짝 찌르는 느낌이랄까, 그의 페이스소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죠." 웃음, 역설, 페이스소. 박지원의 글을 관통하는 코드다. 연애편에서는 웃음을 바이러스처럼 전파하고픈 욕망이 있다. 이와 달리 김유정의 해학은 세상에 대한 희극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토속어와 비속어를 적절히 구사해, 탈출구 없는 부조리한 세상을 조소한다는 것이다. "답답이 아닌 시대적인 감각으로 풍자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의 풍자는 점점 진화한다. 세련되고 모던하게. 인간 근성의 다양함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 작가는 "풍자는 이 시대의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와도 같다"고 말한다. 앞으로 선보일 또 다른 해학의 세계가 기대된다. /서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성석제 작가는 답답이 아닌 새로운 감각으로 해학과 풍자를 추구하고 싶다고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툰

관객들은 바닥 방석을 깔고 앉아 음악을 감상한다. 공연 후엔 연주자와 관객이 와인 한 잔을 놓고 둘러앉아 대화를 나눈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박창수(49)씨의 서울 자택에서 매일 두 차례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다. 이듬해에 '더 하우스 콘서트'(이하 하콘). 지난 2002년 7월 박씨는 '한일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해 의미 없는 대형공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꿈꿨던 '거실 음악회'를 추켜 든 그는 낯은 자택을 개

'하콘'이 나주에 오지 못하는 이유

조해 2층을 30여 평의 연주공간으로 꾸몄다. "집에서 무슨 음악회냐?"는 주변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하콘'은 11년째(34회) 이어져 오고 있다. '거실 음악회'의 장수 비결은 무대와 객석이 따로 없어 악기의 울림과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도시의 23개 공연장에서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 작전'이라는 타이틀로 일주일 간 100회 공연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지방의 공연장이 공연료 200만 원(연주·숙박·교통비 등 포함)을 부담하면 예술가들이 무대를 꾸미는 형식이다. 박씨의 무모한 도전은 올해도 이어진다. 오는 7월12일 하루 동안 전국 100개 공연장에서 100개 공연을 선보이는 '원데이 페스티벌'이다. 그가 이런 깜짝 이벤트를 벌이는 이유는 지방 공연

광주국제영화제 8월 29일 개막

2013년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일 표 행사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부문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티저포스터를 제작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D-day 이벤트도 진행한다. D-day 100일이 되는 21일부터 31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첫번째 이벤트를 진행, 개막식 초청장과 티켓 교환권, 영화제 기념 티셔츠 등을 증정한다. 문의 062-228-9968, www.giff.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 합창 <심사위원> 김성국(광주교대 교수) 윤영로(동신여고 교사)
- 1 남평(이수미 외 39명, 지도교사: 임향진)
 - 2 금당(김민서 외 11명, 지도교사: 박혜이)
 - 3 최고상
 -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 합창(중등부) <최고상>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 <심사위원> 배상철(목포대 교수) 김연주(초당대 교수)
- 1 남평(이수미 외 39명, 지도교사: 임향진)
 - 2 금당(김민서 외 11명, 지도교사: 박혜이)
 - 3 최고상
 -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 합창(중등부) <최고상>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 10명, 지도교사: 윤상민) 4 상사(구 민 외 11명, 지도교사: 이유신)
- 1 남평(이수미 외 39명, 지도교사: 임향진)
 - 2 금당(김민서 외 11명, 지도교사: 박혜이)
 - 3 최고상
 -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 합창(중등부) <최고상>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 1 남평(이수미 외 39명, 지도교사: 임향진)
- 2 금당(김민서 외 11명, 지도교사: 박혜이)
- 3 최고상
-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합창(중등부) <최고상>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 1 남평(이수미 외 39명, 지도교사: 임향진)
- 2 금당(김민서 외 11명, 지도교사: 박혜이)
- 3 최고상
-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합창(중등부) <최고상> 1 광덕(오창선 외 36명, 지도교사: 송윤종)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광**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